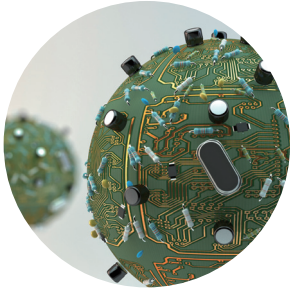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인공지능(AI)의 보편화로 신세계가 만들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2020년에는 선진국에서 약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35년 즈음에는 현재 직업의 65%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에서 새로운 학과를 2017년 신설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신산업과 신학문을 선도하며, 졸업생 전원이 취업 혹은 창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우리의 미래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발전할 융합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전문화된 융합 전공 지식과 특화된 소프트웨어개발 능력을 교육함으로써, 목표한 융합 분야에서 바로 창업하거나 실무 투입이 가능한 글로벌 리더 인재를 양성 합니다.



- 1학년 — 미적분학, 소프트웨어융합개론, 기초프로그래밍, 객체지향 및 웹앱 프로그래밍
- 2학년 — 확률 및 통계, 이산구조,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및 운영체제, 소프트웨어플랫폼 이론 및 실습(기초), 소프트웨어플랫폼 이론 및 실습(심화), 트랙별 목표융합전공 교과목 필수 4과목
- 3학년 — 알고리즘분석,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네트워크 이론 및 실습, 최신기술 이해 및 실습, 산학프로젝트(산학 멘토링), 트랙별 목표융합전공 교과목 필수 4과목
- 4학년 — 현장연수활동(인턴십), 오픈소스개발, 소프트웨어융합 캡스톤 프로젝트 1/2, 트랙별 목표융합전공 교과목 필수 2과목 및 선택 2과목

특별 프로그램

- 데이터사이언스트랙 - 미래형 정보 분석 산업 인재 양성(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산업,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 미래자동차·로봇트랙 - 미래자동차 및 로봇 분야 인재 양성(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Smart-Factory, 제 4산업(Industry 4.0) 등)
- 게임콘텐츠트랙 - 게임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양성(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미래네트워크 등)
- 트랙별 관련 기업과의 취업보장형 교육연계 프로그램 추진(예정)

동아리

융합소프트웨어 및 창업 동아리(예정)

관련 자격 및 시험

트랙별 융합목표학과 관련 자격 및 시험,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 및 시험 (변리사자격시험,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리눅스전문가(LPIC), 오라클공인전문가제도(OCP), 웹 프로그래머자격인증시험(WPC), 네트워크관리자, 정보보호전문가, 자바 프로그래머 등)

졸업 후 진로

-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분야를 포함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전공자의 진출이 어려웠던 융합분야로의 진출
- 새로운 소프트웨어융합학과/융합목표전공 학석사연계과정 모델을 통한 전문 연구자로의 진학

게임콘텐츠트랙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네오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게임 업체를 포함하여, 게임개발/게임기획/게임프로듀서/게임인터페이스디자인/광고기획 등으로 진출
미래자동차·로봇 트랙 -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그룹, 만도 등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자동차/항공/로봇/첨단선박 분야와 함께 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계/전자제어 관련 국공립 기관 등으로 진출

데이터사이언스 트랙 - 금융/유통/컨설팅/정보기술/언론 분야 등으로의 폭넓은 진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품질관리기사, 공정관리기사, ISO9000품질경영진단사 등 국제 인증 전문인

교수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전임 교수, 컴퓨터공학과 전임 교수 및 트랙별 융합목표학과 전임 교수(기계공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공학과)

예비 경희인에게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혁신적인 신산업과 신학문을 견인할 인재를 환영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1차의 3개 트랙을 시작으로 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트랙을 설계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의 복수전공/부전공 수준의 융합이나, 컴퓨터공학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단순하게 개발해 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 교육'을 추구합니다.